

된소리 현상의 새 분석

New Interpretation on Intensification

이 미 재 (수원대 영문과)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nature and function of intensification in Korean in a wider scope of context which was not paid proper attention. Unobserved new areas of intensification are paid more attention like sound split of polysemy e.g. [s'eda], [kyongk'i] by means of intensification and north Korean application of intensification on [wonsu] and intensification of borrowed English.

The recent phenomenon of 'gwua' intensification is experimented on two groups of people, young students and old people beyond 65 years old by means of sociolinguistic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its intensification is a form of student violent power and a mark of extreme solidarity among activist students.

In conclusion, the nature of so called saisiot[t] e.g. intensification is voiceless tensed pause and its functions are the polarization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sound split of polysemy and attachment of social values by intensification.

1. 서론

한국어 된소리 현상은 사이시옷이 개재하여 된소리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지만 그 소리되는 현상이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여 된소리 현상의 원인 규명이 힘들고 그래서 체계적인 설명이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복합어 내부에서 선행어가 파열음으로 끝나는 경우, 뒷소리 연성 장애음이 된소리로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때문에 이경우는 제외하고 앞선 소리가 [+son]인데도 불구하고, 연성장애음인 경우

뒷소리가 앞소리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가 잘 안되는데도 우리말에서는 흔하다.

사이소리가 개재하여 된소리가 될 수 있는 환경(ㄱ, ㄷ, ㅂ, ㅅ, ㅈ)이 아닌 경우에는 된소리가 되지 못하고 '꽃만, 콧물,'에서처럼 구개음화 되기도하고 '늦여름, 담요'에서처럼 [n,]첨가를 야기시키기도 하므로 사이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기존에 많은 연구가 되어 왔던 사이시옷(사이시옷은 [s]의 음가표시가 아니라 중세국어에 나타난대로 선행유성음의 종류에 따라 선택 사용된 ㄱ, ㄷ, ㅂ, ㅅ 같은 변이형태 중의 하나)가 개재로 인한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현상에 대하여 변화 요체인 된소리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의 해석 측면인 어휘적 해석의 경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생성음운론적인 해석 연구를 검토하여 불규칙한 현상 때문에 된소리 되는 조건과 원인 분석이 미약했는데 이를 재분석하여 새로이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어중 된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혀 주목 받지 못했던 어두 경음화 현상을 관찰하여 분석해 보겠다. 어두라는 언어 환경이 사이시옷 개재 환경이 아닌 데다가 불규칙적이고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은 물론 현상 자체의 관찰도 미약했는데 이를 첫번째와 연결하여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다의어(polysemy) 내부에서 된소리로 다른 음가를 표현해 주는 의미 변별에 따른 음성분화의 요인을 분석하여 화자의 심리적 실체(psychological reality)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된소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요연구

1) 된소리 요체인 사이시옷에 대한 정의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a. 소리 앞에 성문 폐쇄음 [ʔ]을 첨가하여 된소리를 만드는 절음 기호로 보는 경우: 이 승녕, 이 극노

b. 설단을 가볍게 잇몸으로 향하여 접근시켜서 입안의 여러군데를 막으면서 소리와 소리 사이에 소리를 정지시켜 만든 무성의 휴식(pause)으로 보는 경우: 허 응, 이 덕홍

c. 소격(possessive)어미로서 사람과 유정물에 [-의]로 쓰는대신 무정물에 쓰이는 [-스] 표지로 보는 경우: 이 기문, 안 병희

d. 체언과 체언 사이에 들어와 그 체언의 종류와 전후 위치에 따라 문맥상 여러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관계로 보는 경우: 임 흥빈 이 희승

2) 대표적인 된소리 분석

a. 어휘론적 의미 해석

이희승(1965:171-72)과 정국(1980:30-46)은 사이시옷이 개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했다. 그러나 이 분석은 대상 단어마다 끝없는 나열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전체 체계에 대한 유기적 설명이 약하다.

이희승의 경우:

사이시옷이 개재되는 경우:

가. 첫말이 주가 되고 다음말은 종속적 지위에 있어서 그 중간에 소유격적 (genitive)의미를 필요로 하는 말 (예: 비스 방울, 바다스 물, 손스 등, 물스 걸).

나. 둘째말이 주가 되고 첫말은 아랫말을 수식하는 관형사적 의미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경우(예: 움스 집, 봄스 바람).

사이시옷이 개재되지 않는 경우:

가. 첫말은 다음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한 재료가 되는 경우(예: 마루방, 들 집, 질그릇, 밥밥, 콩죽).

나. 둘째말이 한개의 완전한 독립명사가 되지 못하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으로 부터 명사로 전성한 경우(예: 해돋이, 손잡이, 강건너).

다. 첫말이 소유격의 주체나 수식의 관형어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경우와 두말

을 분리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연 단일한 명사로 볼 성질의 말(예: 봄보리, 신밭, 밀밭, 콩밭).

정국의 경우: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가. 선행어가 시간(time)을 표시(예: 봄비, 가을바람, 아침밥).

나. 선행어가 장소(place)를 표시(예: 산달, 강달, 안방).

다. 선행어가 후행어의 기원(origin)을 표시. 소유(possession)와는 같지 않다(예: 술방울, 눈동자).

라. 선행어가 용도(use, for)를 표시(예: 고기배, 잠자리)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가. 두 요소가 동등할 때(예: 마소, 봄가을).

나. 선행어가 후행어의 형태(shape)나 재료(material)를 표시(예: 반달, 실비, 쌀술, 콩밥, 쌀밥).

다. 선행어와 후행어와 동격관계(appositive relation), 곧 종류명칭(species name)이나 지위(status)를 표시할때(예 종달새, 계수나무, 어미닭).

라. 선행어가 후행어의 소유자(possessor)임을 표시하고 선행어는 유정물이어야 한다(예: 사람집, 개다리, 생선다리, 범가죽).

마. 후행어가 파생명사일 때(예: 해돋이, 장조림, 눈갈이).

b. 생성음운론적 규칙에 의한 해석.

위의 분류를 근거로 세운 Kim-Renaud, Young-key(1974)와 Chung, Kook(1980)의 생성음운론적 규칙은 비경음화 단어까지도 경음화 범주에 포함 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Kim 과 Chung은 '봄비'등은 경음화하지만 '금비녀, 개다리, 돌집'등은 경음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한 오정란(1987)에서는 복합어를 격의 범주내에서 분류하여 복합격(compositive)으로 소격, 처격, 수혜격(소격은 반드시 무생물이어야 함)을 설정하여 Hyman(1978)의 경계약화이론을 접합하여 [?]삽입을 시켜 후두음 확산(Laryngeal Spread)이 되어 된소리가 된다

오정란에서 추상적인 복합격으로 경계약화규칙을 설정한 다음 자립분절소 [?]을

삽입하여 후두음 확산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같은 언어적 환경에 있어 경계약화 규칙조차도 필요없는 단어 '경기, 안다, 세다' 등이 선택적으로 된소리가 되어 다의어(polysemy)의 두가지 이상의 의미를 된소리가 되고 안됨에 따라 음성적으로 변별하여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더 넓은 된소리 영역에 대한 관찰

김차균(1984)에서 보면 된소리의 본질로 파악된 [?]나 [-ㅅ]나 소리와 소리사이 휴식(pause)이거나 모두가 조음기관에 긴장을 최고로 수반하고 된소리인 ㄱ, ㄷ, ㅃ, ㅆ, ㅈ도 긴장을 크게 받는다. 그러므로 된소리라는 말자체도 소리가 '되게' 된다 즉 긴장한다는 뜻으로 풀이 해본다.

첫째 된소리는 어중뿐 아니라 어두에도 나타난다. 이 현상은 공시적으로는 물론 통시적으로도 관찰 된다. 중세국어에서 '불휘'가 '뿌리'로 되었다. 소창 진평(1944)과 김형규(1974)는 약 한세대의 시간상 간격을 두고 있는데 소창진평에서는 함경북도 방언에 나오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두경음화가 일어난 자료를 거의 찾아 볼수 없다. 그런데 김형규에서는 105개가 나타났다.

둘째 공시적으로 '작다-작다, 조그맣다-쪼끄맣다, 질기다-질기다, 단단하다-뽕뽕하다, 다습다-따습다, 자릿자릿-짜릿짜릿, 반짝반짝-뽕뽕뽕뽕, 중국-쪼국, 쪽집게-쪼집게, 고추-꼬추, 가시-까시, 가마귀-까마귀, 상늬-쌍늬, 곱추-뽕추, 고두밥-꼬두밥, 공짜-꽁짜, 시어머니-씨어머니(씨에미), 끼(끼가 있다), 파(영문과의 파), 씨(씨자 들어가는 사람은 싫다에서 씨), 머리가 든 아이라는 뜻의 도라이-또라이, 및 각종 욕설에 된소리가 많이 나타난다.

세째 북한에서 발행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편인 [현대조선말사전](1981)에 원래 다의어(polysemy)였던 '원수'를 된소리를 이용하여 두단어로 기록하고 있다.

원수: 김일성 수령을 지칭,

원수: 적, 미제 제국주의 원수들, 불구대천의 원수 남한에서는 적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원수의 변이형으로 '웬수'를 쓰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아예 된소리를 이용하여 새 어휘를 만들어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두개의 정의를

담고 있는 다의어(polysemy)를 된소리를 이용하여 두 단어로 분리시켜 놓은 것은 된소리의 성격과 역할 원인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고 흥미롭다.

네째 '경기'-[kyongki]-sports

-[kyongk'i]-잘 놀라는 일종의 병

'세다'-[seda]-count

-[s'eda]-strong

'안다'-[anda]-to know

-[and'a]-to embrace 에서 볼수 있듯이 된소리를 이용해 다의어의 의미를 음성적으로도 변별해 주려고 한다.

다섯째 차용된 외래어 소리의 된소리 경향이다.

'버스' bus -'빠쓰'

'셔츠' shirt -'셔쓰'

'크리스마스' Christmas - '크리쓰마쓰'

'가스' gas- '까쓰'

'팬티' panty- '뽀쓰'

'백' back- '뵙'

'핸드백'의 '백' bag -'뵙'

영어에서 일본어를 거쳐 차용된 것이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된소리로 소리나는 양상을 관찰한다.

4. 된소리의 심리적 실체

된소리 분석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오정란(1987)에서 경계(boundary)약화 현상은 된소리가 일어나는 소격 처격 수혜격은 CV+CV구성되고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주격 목적격 도구격 등은 CV#CV이므로 내부구조가 [#()##()#]에서 [#_+_]로 바뀌면 사이시옷이 개재하여 된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건이 변화하는 과정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이 미약할 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 있어서 경계약화현상을 가져 와야하는 어두경음화를 설명해 줄 수 없게 된다. 복합어내부 경음화 현상이 복잡하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의 경우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데 된소리 설명은 모든환경에 다 적절해야하며 한국인의 심리적 언어 정서의 심리적 실체(psychological reality)를 포착해 주어야 한다.

소리와 소리사이에서 소리를 정지시키는 무성의 휴식으로 긴장을 동반하여 성문이 폐쇄되는 [ʔ]음과 비슷한 소리값을 갖고 있는 된소리는 그 기능이 사회적 요인과 결합된 화자의 심리적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덕홍(1991:23)에 사이시옷이 ㅅ, ㅈ, ㅊ, ㅍ 등 여섯개의 표기로 용비어천가(1445)에서부터 벽은신방(1653)에이르기까지는 선택적으로 쓰였지만 공통적으로 쓰인것은 [ㅅ]이고 이문헌을 제외한 이후의 다른 문헌에서는 모두 [ㅅ] 하나만 쓰였다. 무정물의 소격으로 [ㅅ]가 쓰이고 유정물에 [의]가 쓰였으므로 현대어에서의 가장 유력한 흔적을 판소리에서 볼수 있다. 판소리 명창을 들으면 '심청 생모 죽고', '지팡이 힘으로'에서와 같이 '의' 소격을 생략하고 긴장된 성문폐쇄 휴식을 갖음으로서 소유를 처리한다. 판소리는 그 전수 방법이 전통 수법을 고수하고 구전되는 특징이 있기때문에 중세국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중세국어의 '방앗소리, 나랏왕, 나뭇불워'등이 무성의 휴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ㅅ]이 무성의 휴식(pause)로 되면서 그 안에 함축하는 의미의 밀착도와 긴밀도가 된소리와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이것을 포착하는 것을 사이시옷에 대한 심리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심리적 실체는 의미의 거리에 따라 심리적 거리의 밀착도를 보여준다.

제이의 심리적거리 설정의 이유는 장모음과 단모음이 변별성(distinctiveness)을 상실하면서(이미재 1988) 장단에의한 의미 변별이 모호해져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장모음이었던 단어와의 결합은 원래 단어가 갖고 있던 장모음의 거리를 유지해 주기때문에 된소리로 되기가 어렵지만 단모음이었던 단어는 이러한 심리적거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된소리로 되는 것이 용이하다.

예: 밤밥 --- (chestnut rice)-- 밤밥[pampap]

(night rice)----- 밤뺨[pamp'ap]

밤도둑 --- (chestnut thief)-. 밤도둑

[pamdodug](night thief)----. 밤도둑[pamd'odug]

'무우'는 '무'로도 쓰이는데 여기에 '국'과 결합될때 '무우' 즉 [u:]장모음과의 결합은 된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단모음일 때는 된소리가 된다.

예: 무우국 - (radish soup) - 무우국[mu:kuk]

무국 -- (radish soup) - 무국[muk'uk]

개체 단어의 소리에서는 장단의 구별이 사라졌지만 복합어 내부에서는 장단의 구별을 지키려는 심리적 요인이 심리적 거리를 주어 된소리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실체는 첫째 Allen(1975)의 strictness/looseness와 familiarity/unfamiliarity 관계와 연관지을 수 있다. 생활 주변의 일상과 친숙하고 화자의 욕구가 강한 것일수록 사용 빈도가 잦을수록 소리를 막는 후두 폐쇄위치에 갖고 있던 긴장한 휴식이 풀어지면서 휴식의 자리가 텅소리의 변화를 야기 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밥, 보리밥, 쌀밥' 중에서 오직 '김밥'만 [kimpap]이 [kimp'ap]으로 노년층을 제외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즐겨 사용 된다. 친숙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차용된 외래어 '버스, 가스, 크리스마스' 등 앞에서 든 예를 참고 할 수 있다.

둘째 휴식이 풀어 지면서 휴식자리에 있었던 의미 구조가 긴것과 빈도가 낮은것은 된소리가 되지 않고 풀은 것은 된소리가 된다고 본다. 의미 해석이 가장 짧은 것이 소격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가장 많고 그빈도수도 월등하다. 그러나 이 의미 해석의 정도는 개별 화자의 몫이고 화자의 욕구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소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된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새집 --- (bird's nest)[saechip]

(new house)[saechip]

(inbetween house)[saech'ip]

새밥 --- (bird's food)[saepap]

(new food)[saepap]

(inbetween food)[saep'ap]

새서방 - (new bridegroom)[saesopang]

(illegal husband)[saes'opang]

새거리 - (new street)[saegori]

(inbetween food, snack)[saeg'ori]

여기서 보듯이 소격인 bird's nest인 새집과 bird's food인 새밥이 된소리로 되지 않는다. 즉 소격이라고해서 모두 된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이'의 준소리인 '새'가 '집'과 '밥' 서방' '거리' 등'과 결합하여 된소리가 되었다.

세째는 된소리는 감정의 극대화를 나타낸다고 본다. 형용사일 경우 최상급을 표현

한다. 표현 욕구의 극대화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양분하여 양쪽 다 된소리화를 주도한다. '세다'가 [s'eda]로 될때는 (count) 의미가 아니라 (very strong 또는 strongest)이다. 된소리로 [s'eda]라고하면 원급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대신한 것으로 본다. 즉 최대의 효과를 필요로하는 감정을 된소리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단어의 본래 기능을 극대화 해 준 것이 된소리다. '족집게' 경우 [ch'dkch'ipk'e]로 하면 명확한 포인트의 명증성을 극대화한다. 잘 알아 맞추는 점쟁이 즉 가장 명증률 높은 점쟁이를 [ch'okch'ipk'e]라고 한다. 같은 현상은 '질기다-찢기다, 작다-작따, 단단하다-판판하다, 조그맣다-쪼그맣다, '밋 의태어와 의성어에서 '반짝반짝 자릿자릿-짜릿짜릿, 곱실곱실-곱실곱실 등에서 두두러진다. 부정적인 심리상태의 극대화는 고통과 불쾌의 경험으로 규범에서 이탈한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Milroy(1980)의 Belfast 연구에서 사회 구성원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개개인일 수록 비표준 언어 형태일지언정 언어 실행에 있어서 선호도(communicative preferences)가 높다고 보고 되었다. 이러한 vernacular loyalty는 사회 구조 (social network) 핵심으로 언어 유지(language maintenance)의 중요한 메카니즘이 되며 다른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사회적 언어적 저항을 표시할 뿐아니라 화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solidarity)를 표시한다. Trudgill(1975)에서 보고된 하층 노동자 계층 젊은 남자가 은밀한 특권표지 (covert prestige)로 여기는 남성성 (masculinity)과도 일맥 상통한다. 육설의 경우 '개새끼'-puppies/son of bitch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소격의 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의미일때는 된소리를 안하지만, 육을 할때는 된소리를 한다. '시어머니'가 된소리 되면 시어머니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정상적인 규범에서 이탈된 의미로 '..끼가 많다', '뺨이 있다'에서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새로 만든 단어로 사전에 새로운 어휘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썩'은 '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불쾌감의 극대점을 잘 표현해 준다.

5. 된소리의 심리적 실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검증 및 결론

19세에서 23세의 대학생 남녀 각각 10명과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소재의 노인정에 있는 65세이상의 노인 20명을 Labov의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했다. 대상 어휘항목은 '...과'를 '...파'라고 얼마나 실현하며, 왜 실현하는가를 알아 보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터뷰했다.

학생들에게 대담 형식으로 소속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경청했고 노인들에게는 행정부서의 각과에서 격었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경청했다. 덧붙여 학생들에게는 이미 4층에 영문과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아래와 같이 질문해서 '과'라는 단어의 된소리 실현을 연구했다.

질문자 --- 4층에는 무슨과가 있나요?

제보자 --- 영문과(과)가 있는데요.

질문자 --- 뭐라고요?

제보자 --- 영문과(과)요. (라니까요.)

처음 질문과 두번째 질문의 차이는 두번째가 첫째보다 더 자연스럽다. 그 결과 노년층의 경우 '과' 실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과'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학생회의 간부이며, 데모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일수록 남녀를 불문하고 '과의 실현은 100%'였다. '과'는 학업의 중요성을 대학 생활의 핵심으로 보는 경우가 모두 된소리를 쓰지 않았다. 대학생들과의 대담 분석에서도 위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위의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 사이의 반정부 투쟁 student power 단결력과 투쟁의 서로간의 인식의 표지로 된소리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본다. 투쟁이나 단결이나 남성성은 육설이나 '원쑤'에서 짐작 할수 있듯이 된소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위와 같은 필요성이 없다.

'과'현상은 최근의 현상임이 분명해졌다. 최근 젊은층이 이단어에 된소리 현상을 보이는 것은 대학생들이 말하는 '투쟁'에 과의 역할과 과의 결속이 요청되는바 폭력적인 행위의 표지로 최고의 긴장을 수반한 된소리로 자신을 나타냈다고 볼수 있다. 살벌하기까지 했던 학생 구호가 난무했던 80년대의 데모 양상에서 고조된 긴장된 언어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된소리는 그 실체가 무성의 긴장된 휴식이며 된소리로 됨으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본래의 언어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좀더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언어 공동체의 심리적 실체를 찾아 언어 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된소리를 포함한 언어변화에 좀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설명이 앞으로 계속 되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김 형규 (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 출판부.
- 김 차균 (1984) 현대 국어의 사िस, 언어학 67-82, 한국언어학회.
- 소창진평(1944) 조선어 방언의 연구.
- 오 정란 (1987) 국어 복합어 내부의 경음화 현상, 언어학 35-53, 한국언어학회.
- 이 덕홍 (1991) 국어 사이시옷의 문헌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미재 (1988)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1990) 남북한의 국어사전 비교 분석을 통한 언어 이질화 현황과 동질화 방안, 북한 통일 연구 논문집, 통일원.
- 이 현복 (1987) 한국어의 표준발음 - 이론과 실제 - 대한음성학회.
- 이 희승 (1965) 국어학개설. 서울 민중서관.
- 허 용 (1964) 국어음운학. 서울 정음사.
- Allen, Margaret R. (1975). Vowel, Mutation and Word Stress in Welsh. Linguistic Inquiry, 4, 181-201.
- Chung, Kook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yman, L. M. (1978). Word Demarcatio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2, 443-470.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m-Renaud, Young-key (1974).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Seoul: Tower Press.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Milroy, L. (1980) Language and Social Networks, Basil Blackwell: Oxford
- Sohn, H. (1979), Tensification in Compound Boundaries in Korean 100-113.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Chinwoo Kim.
- Trudgill, P. (1975), "Sex, Covert Prestige, and Linguistic Change in the Urban British of Norwich," Reprinted in B. Thorne and N. Henley, (ed.),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88-104.